



글로벌비스

물류업계 최초 ISO 27001 인증



글로벌비스(대표 이광선)가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ISO 27001(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글로벌비스가 획득한 ISO27001(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인증은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기존 영국표준인(BS:British Standard) BS7799에서 승격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정보보호 인증 제도이며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11개 영역, 133개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수여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비스는 2월10일 강남구 역삼동 글로벌비스 본사에서 인증대행기관인 BSI MS KOREA(영국표준협회)로부터 ISO27001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황선채 글로벌비스 정보기술실장은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고객사의 정보 보안은 물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정보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비스는 매주 내부 보안정책 재정비 및 보안 위험 평가 등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항시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의식과 실천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부해운

케미컬 탱커 인수

케미컬 탱커 선사인 삼부해운이 8000톤급 케미컬 탱커 1척을 인도받는다.

삼부해운(대표 박진검)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총 건조자금 183억원중 정부자금 57억원을 지원받아 신조한 8,000톤급 케미컬 탱커를 2월16일 목포 녹봉조선에서 출항행사를 가졌다.

지난 1967년 국내 연안 케미컬 탱커 선사로 출발한 삼부해운은 1600~8000톤급 케미컬 탱커 9척을 보유한 국내 연안 및 동북아지역의 케미컬 탱커 전문선사로 이번에 8000톤급 케미컬 탱커 1척을 신조 추가함에 따라 선대가 10척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삼부해운이 8000톤급 케미컬 탱커 신조에 활용한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연안해운업체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연안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대상이며 통상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선박건조자금의 80%까지 저리로 용자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선박현대화지원사업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중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SK해운

황규호 사장, 해양소년단 총재 취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신임 총재에 황규호 SK해운 사장이 추대됐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2월26일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제14대 총재에 황규호 SK해운 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황규호 신임총재는 현재 SK해운(주)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SK주식회사 CR전략실장 및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황규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신임총

재는 취임사를 통해 "올해 초 연맹총재 권유를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요하는 자리인지라 고사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청소년 건전육성 설립 취지를 생각해 부족하나마 이같은 뜻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바다를 사랑하는 맘을 길러주고, 바다를 알게 하고,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싶고,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총재는 "지난 30년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이뤄놓은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승화되길 희망한다"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데 있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한마음으로 발전된 연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 극지연구진흥회의 윤덕순 회장은 "1985년 남극해협 일정을 완성하거나, 이어도 탐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등으로 인해 해양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1988년에 개최됐던 강산제 등을 통해 한국이 해양국가임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개척과 도전정신의 결과서써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이 선임된 황 총재 역시 학식과 경험이 많고 덕망이 있어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며 격려했다.

한편 이 날 있었던 정기총회를 통해 2008년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승인을 진행했으며, 아울러 정관계 정과 임원의 재선임 및 퇴임 승인도 이뤄졌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발, 월간 바다친구들 웹진 발간, 청소년호국수련활동, 수상구조원 및 래프팅안전지도자 연수, 요트학교, 수상레저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어렵게 모인 지방 연맹장들은 지난 1년간 이사회나 지방 연맹장 모임 등이 없었다며, 앞으로 연맹의 운영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모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STX팬오션

장기수송물량 잇단 확보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2월4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발주한 약 2,000만달리 규모의 장기운송계약(COA) 선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TX팬오션은 연간 약 100만 톤의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3년간 수송하게 된다.

이에 앞서 STX팬오션은 지난해 11월 글로벌스와 15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철광석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데 이어 12월말에는 20년간 연간 70만 톤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LNG 수송사업 개시로 연간 2천만 달러, 총 4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단 3건으로 최장 20년간 총 1조 원어치 수송물량을

확보했다.

STX팬오션은 또 국내·외 우량하주와 총 100여 건에 이르는 1년 이상 장기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기준 한 해 매출에서 약 30% 정도 차지하면서 수익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해운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송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안정적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초우량 선사로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동발전 유연탄 수송 입찰에는 STX팬오션 등 국내 선사 9곳을 포함해 일본 NYK코리아 등 일본 해운업체 2곳 등 총 11개사가 참여해 경쟁을 펼쳤으며, 국내 전략물자 수송을 놓고 국내 및 일본 선사간 대결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KSS해운

투명경영대상 수상



국내 대표적인 케미컬·가스 운반 선사인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월11일 조선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SS해운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투명경영대상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으로 매년 경영투명성·노사안정성·사회공헌성 등을 두루 겸비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혹독한 한파로 인해 대기업들이 대거 탈락하고 유일하게 중소기업인 KSS해운 1개 업체만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 우수상을 차지하게 됐다.

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은 "KSS해운의 우수상 수상은 중소기업으로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한 모범업체라는 점에서 대상 못지않게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KSS해운은 "깨끗한 기업을 만들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창업정신으로 1969년 설립된 이래, 리베이트·밀수·사시(社是)·사내인맥·회계장부 조작이 없는 5無기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킨다"는 원칙경영과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KSS해운은 창업주인 박종규 前회장이 일찍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이래 종업원지주제를 지켜오고 있으며 윤리강령, 안전경영규약 및 KSS해운 안전품질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진

부산-광양-인천 연안항로개설

(주)한진(대표 석태수)이 2월10일 군산~광양간 연안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한데 이어 '부산-광



양-인천항'을 연계하는 연안해송서비스를 개시한다.

(주)한진은 최근 "부산항을 기점으로 인천항과 광양항간에 215TEU급(4000톤급) 정기 연안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해 주 3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안정기컨테이너선의 항비, 접안료, 정박료 등의 항만시설이용료가 감면된다.

한편 (주)한진은 이번 군산~광양간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는 물론, 연간 140억원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전북지역 수출입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

베트남에 전용터미널 확보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베트남 사이공뉴포트(SNP)와 2월4일 호치민시 SNP 본사에서 '한진해운 탄캉카이맵 전용터미널합작'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진해운 최진식 터미널 BU장(전무)을 비롯해 응웬 반 히엔(Nguyen Van Hien) 베트남 해군 참모총장 겸 SNP 회장, 마사카즈 야쿠슈지(Masakazu Yakushiji) MOL 부사장, 토니 초우(Tony Chow) 완하이라인 사장이 참석했다.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Ba Ria-VungTau Province)에 위치할 이 터미널은 2개선석, 연간 약 115만TEU의 물량 처리를 목표로 2011년 1분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본 계약 체결에 대해 한진해운 최진식 전무는 "아시아의 신흥시장인 베트남지역에 안정적인

선석 확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운항 정시성 제고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함과 동시에 향후 서남아 지역의 주요 허브 포트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작년 9월 개장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용터미널을 포함 현재 총 12개의 전용터미널(국내4개, 해외8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부산신항 개장과 함께 잭슨빌(Jacksonville), 스페인 알헤시라스 (Algeciras) 등 신규 터미널 건설 및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상선

역대최고 트리플크라운 달성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연간 매출 8조 30억원, 영업이익 5,876억원, 당기순이익 7,036억원을 달성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가지 모두 역대 최고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현대상선의 이번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매출은 5조 919억원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142억원에 비해 87%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773억원에 비해 무려 297%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올렸다.

더욱이 현대상선의 이번 실적은 환율 변동에 따른 경영실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경제 위기로 컨테이너선 부문과 벌크선 부문의 시황이 동반 악화돼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현대상선은 불황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주는 유조선, LNG선 그리고 전용선 부문이 전체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강점은 리스크관리 체계이다. 특히 2008년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사전에 확립해 놓은 것과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과열된 벌크선 부문에 보수적 투자를 한 것이 이번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데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 인사발령

울산항만공사는 2월2일자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경영기획팀장 1급 박만우→감사팀장, 2급 이현수→경영기획본부 선진화 TF팀장, △고객지원팀 2급 변양수→경영지원팀, △감사팀장 2급 이길연→고객지원팀, △통합민원센터 3급 김희경→감사팀, △감사팀 5급 지형도, 경영기획팀 5급 조성덕→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4급 신광철, 4급 이루진→경영기획본부 선진화 TFT, △비상계획팀 3급 허영무, 5급 이지명→항만물류팀, △통합민원센터 4급 이은성, 6급 김순영, 경영기획팀 5급 이현교→항만운영본부 고객지원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상복 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유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상복 회장(범주해운



대표이사)이 유임됐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2월1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상복 회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유임 결정에 대해 이상복 회장은 "협회장의 가장 큰 책무중 하나가 능력있는 후임을 선임하는 일인데 그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 앞으로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임을 양성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이상복 회장의 유임을 결정하는 한편 19대 임원진을 새롭게 선출했다. 부회장은 송종설 한국유니버설해운 사장, 박호건 동신선박 사장이 유임됐고 박태원 연합해운 사장이 새로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사진은 18대 임원진에서 부회장을 지냈던 이순영 양명한국 이순영 사장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사로 변경됐고 나찬희 빅리프트 사장, 송해철 만해항운한국 전무가 각각 개인사정으로 이사직을 내렸다. 나 사장과 송 전무가 이사자리를 비움에 따라 장한암 협운해운 부사장과 한정기 피아이엘코리아 전무가 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두우해운의 김영찬 사장 대신에 서계우 상무가 새로 이사에 선임됐다.



또한, 해운경기 위축으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회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비를 최대 43%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현재 7개 등급(A+~F)인 회원사 등급을 4등급(A~D)으로 단순화하고 회비를 최대 43%에서 최소 10%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운대리점협회는 또 지난해 해운경기위축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와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 적용에 따른 일부회원사들의 탈퇴 요청 등에 따라 24개사가 제명처리됐다고 밝혔다.

[제19대 해운대리점협회 임원 현황] △명예회장 : 왕상은 협성해운 회장 △고문 : 이윤수 KCTC 부회장, 마상근 협운해운 회장, 홍용찬 우성마리타임 회장 △회장 : 이상복 범주해운 사장 △부회장 : 박태원 연합해운 사장, 박호건 동신선박 사장, 송중설 ISS한국유니버설해운 사장 △이사 : 강관유 엠에씨코리아 사장, 김기훈 모락스마리타임 사장, 김정근 한국머스크 부사장, 서계우 두우해운 상무, 서상병 위동해운 부사장, 신용경 신성해운 전무, 신희철 캠티석유화학 사장, 이상직 흥아로지스틱스 사장, 이수철 신신서울 사장, 한정기 피아이엘코리아 전무

한국선급

오 회장 싱가포르 해운단체 등 방문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의 오공균 회장은 지난 2월11일과 12일 양 일간 싱가포르 및 홍콩해운협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의장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IACS의

활동상을 알리고 아시아 해운업계와의 이해와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 및 홍콩 해운협회 방문한 오공균 회장은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선박안전, 조선품질, 해상환



경 보호는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으나 해사업계는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힘이 있음을 확신하며 IACS는 안전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오회장은 GBS의 검증 절차, 산적화물선의 정의, 보호도장성능기준, 비손상복원성기준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 협약에 대한 통일해석 등 IACS가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기술 자문'으로서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인력양성사업 200억원 수주

해양강국을 선도해 온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올해 정부의 굵직한 해양인력양성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인력 양성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120억원, 자원개발특성화사업 50억원, 2단계 BK(두뇌한국)21사업 30억원 등 해양인력양성 사업비만 모두 200

역원을 따냈다. 해양인력양성사업비로는 전국 대학 중 최대 규모다.

이들 사업비는 대학 연구비와 학부생·대학원생의 장학금, 교수인력 확충, 실험기자재 구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어서 한국해양대의 교육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대는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기술훈련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의 핵심 중점사업인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을 통해 동남권 전략사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분야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 사업을 위해 구축한 시설과 장비를 학생교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해양대 부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오진석 교수는 “이 사업은 교육비 수입을 창출하고 대학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진정한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또 자원개발 관련 학과(학부) 육성을 위한 자원개발특성화사업을 통해 교육 인력 확충과 실험기자재 구입,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해 자원개발관련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한층 더 확충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2단계 BK21 사업에서 ‘핵심과학기술응용 및 학제간융합’ 분야와 ‘핵심인문사회’ 분야 등 2개 사업분야 사업단(팀)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해양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0억8600만원을 지원받아 기존 1개 분야 사업팀을 포함 모두 3개 사업단(팀)이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담당장 조종래 교수는 “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져 연구실적이 부진한 곳이 무더기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BK21 사업에서 2개 사업이 신규 선정됨으로써 한국해양대의 연구능력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해상보험 협력사와 제휴 강화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손해보험 중개업체, 검정 및 정산업체와의 전략적 업무 제휴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합의 해상보험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고객의 소리를 최일선에서 청취하고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8일에는 중개업체들과, 2월5일에는 검정 및 정산업체를 각각 초청하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조합 해상보험 소개, 208년도 주요 실적, 2009년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상의 보상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해상보험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정유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조합 해상보험은 보험료 수입 500억원 달성, P&I 보험 900여척 가입, 해운조합 공제브랜드 KSA 해상종합보험 / KSA Hull · P&I로 재탄생 등의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One-Stop 보험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업체 담당자들에게 앞으로도 조합 해상보험의 신뢰도 향상 및 시장확대를 위해 클레임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손해보험 중개업체, 검정 및 정산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조합 해상보험 가입 경로를 다변화함은 물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급변하는 해상보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해객화선사협회

신임회장에 한준규 사장 선임

황해객화선사협회 신임 회장에 대인훼리 한준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황해객화선사협회는 2월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인훼리의 한준규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주)진천국제객화항운의 안완수 대표이사와 진인해운(유)의 윤수훈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석도국제훼리(주)의 감상겸 대표이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이번에 회장으로 선임된 한준규 신임회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77년 입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9년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에 근무하면서 처음 해운과 연관을 맺었으며, 이후 UN-ESCAP 해운 전문관 파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양수산부 공보관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인훼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신임 임원 선출과 더불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운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대고객의 서비스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추진해 한중간 카페리 항로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하주의 운송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해 한중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육·해상 차량운송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한해 한중간 카페리는 수송인원은 113만 1358명, 컨테이너 36만 7204teu를 수송, 전년대비 각 2%, 4.7%씩 감소했다.

[한준규 신임회장 약력] △생년월일: 1950.11.20 △학력: 배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영국 UWIST대학교 △경력: 해양수산부 공보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대인훼리 대표